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효과적인 음악사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서양 음악사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순 아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효과적인
음악사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서양 음악사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he Musical History in the High school music textbook

- Focusing on Western musical history -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순 아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효과적인
음악사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순 아

유순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2
3. 선행 연구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5
1. 서양음악사의 개념	5
2. 서양음악사의 분류	5
3. 서양음악사의 교육적 활용	9
III.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서양음악사	12
1. 8종 음악 교과서별 시대구분	12
2. 8종 음악 교과서별 내용분석	22
IV. 효과적인 서양음악사 교수·학습 연구	25
1. 수업 연구 방향	25
2. 수업 그림 자료	26
V. 결론	44
참고문헌	46

표 차례

<표 1>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	2
<표 2> 스탠리(Stanley) & 레이덤(Latham)의 시대구분	8
<표 3> 서양음악사 분류 - 교학사	12
<표 4> 서양음악사 분류 - 대한	13
<표 5> 서양음악사 분류 - 두산	14
<표 6> 서양음악사 분류 - 박영사	15
<표 7> 서양음악사 분류 - 세광	17
<표 8> 서양음악사 분류 - 천재	19
<표 9> 서양음악사 분류 - 태성	20
<표 10> 서양음악사 분류 - 현대	21
<표 11> 교과서 서술방식에 문제점	22
<표 12> 교과서 오류 및 정정할 내용 (작곡가와 작품부분 중심으로)	23

자료 차례

[그림 1] 서양음악사 시대 구분	27
[그림 2] 고대 음악 역사적 배경	28
[그림 3] 고대 대표적 작곡가	29
[그림 4] 중세 음악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30
[그림 5] 중세 음악 대표적 작곡가	31
[그림 6] 르네상스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32
[그림 7] 르네상스 대표적 작곡가	33
[그림 8] 바로크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34
[그림 9] 바로크 대표적 작곡가	35
[그림 10] 고전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36
[그림 11] 고전 대표적 작곡가	37
[그림 12] 낭만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39
[그림 13] 낭만 대표적 작곡가	40
[그림 14] 근대·현대 역사적 배경 및 음악적 특징	41
[그림 15] 근대·현대 대표적 작곡가	43

Abstract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he Musical History in the High school music textbook - Focusing on Western musical history -

Soon-Ah Yu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ppreciation of music, which is a part of the activity field, improves the attitude to enjoy music by know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al pieces through listening to more musics.

Also, it explains that appreciating music brings a deeper understanding of music by analyzing and appreciating music in a historical and cultural sense.

In other words, teaching music with its history in the class leads students to a better comprehension of what the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imply and how music has been changed.

So this research compares various music textbooks on the descriptive method, content, periodic division, definition of periods and relevant musical pieces and shows the teaching plan of the effective musical history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As it can be seen, a teacher must consistently research on what he or she wants to teach. Students would feel a lot more comfortable in classes on the historical aspects of music when the teacher develops diversely visual and auditory aids and finds interesting factors so that his or her students can concentrate on the clas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에 따라 음을 매개로 하여 그 표현 형태에 담긴 인간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향유하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추구하고 왔다.

음악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작품 및 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심미적 교과이다. 음악 학습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음악 작품 및 활동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예술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창의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자기표현 및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라 할 수 있다.¹⁾

음악 교육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음악 이론 시험을 제외하고는 주로 가창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이전의 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로 가창에 대한 기억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음악 이론이나 가창 역시 음악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임은 사실이다.

가창에 대한 교육은 음악 활동의 목적인 심미적 교과라는 측면에서는 적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음악 이론에 관한 교육은 심미적 교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음악 이론에 관한 교육 역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설명하는 등 감상 활동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 역시 그다지 어렵게만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음악 이론은 물론 음악 교육의 목적인 심미적 체험을 통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 4개의 음악 영역 중에서 감상 교육을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다양한 악곡을 접함으로써 음악 교육의 목적인 심미적 체험을 가능케 하고,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곡을 접함으로써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악 이론에 관한 교육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가창, 기악, 창작 영역 등은 다른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상 교육은 넓은 의미로 음악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시함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감상 교육은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교육은 주로 교과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1)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 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pp.26-7.

미친다.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 역시 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습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감상에 대한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서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양 음악사의 서술방식 및 내용, 시대구분, 시대명 정의, 관련 감상곡을 교과서별로 비교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음악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고등학교 감상 수업에 있어서 음악사와의 연계성을 통해 음악사적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효율적인 음악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을 선택하여 분석·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²⁾

저자명	출판사명	분류 기호	교과서명	검인년월일	발행 연도
정영택, 허화병	(주)교학사	A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2001. 11. 22	2004. 3. 1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주)대한교과서	B		2001. 7. 26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주)두산	C		2001. 11. 22	
이강율, 주광식 김금수, 황 선	박영사	D		2001. 7. 26	
고춘선, 홍종진	세광출판사	E		2001. 7. 26	
백병동, 최 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주)천재교육	F		2001. 11. 22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도서출판 태성	G		2001. 7. 26	
윤경미, 문 진	현대음악출판사	H		2001. 7. 26	

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를 편지사 출판사의 가나다순으로 순서를 정하여 분류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檢認定)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에 수록된 서양 음악사 내용에 대한 서술방식과 서술내용, 관련 감상곡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서양 음악사 수업 모형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본 연구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서양 음악사를 시대별로 분류하였다.³⁾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음악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흐름을 파악하고 서양 음악사의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의 각 교과서에 나타나는 음악사 영역의 분석을 통해 서술방식 및 서술내용을 비교한다.

넷째, 각 교과서별 연도 구분 및 시대명, 관련 감상곡을 비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서술방식의 문제점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서양 음악사 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절차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서양 음악사 수업 모형을 구성하였다.

3.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 앞서 음악사 연구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은희(1999)의 논문 『음악사 영역 및 그에 따른 감상곡과의 연계성 비교분석 - 현행 45종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음악사 영역의 중요성 및 그에 따라 구성된 감상곡과의 연계성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감상 영역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어, 적은 수업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여양현(2001)의 논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음악사 영역에 대한 분석연구 - 제 6차 교육과정 9종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9종의 교과서에서 음악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각 교과서별로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음악 교과서 내용 중 특히 전통 음악사에서 조선시대의 음악을, 서양 음악사에서 근대, 현대의 음악을 연구 분석하여 그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였다.

박은경(2003)의 논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서술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을 중심으로

3) 현행 교과서의 음악사 부분은 서양음악사와 한국음악사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의 '음악사'라는 용어는 서양 음악사로 제한하도록 한다.

시대구분, 서양 음악사의 서술방식에 관한 분석과 서술방식의 문제점, 작곡가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중심으로 종합 및 정리하였다.

이현희(2004)의 논문『음악사와 감상곡에 대한 분석 및 연계성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음악사 영역과 감상 영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음악사적 시대에 따른 감상곡을 교과서별로 비교, 분석하여 어느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측면이 가장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문세리(2006)의 논문『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사 수업을 위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음악사 영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미국과 독일 교과서의 음악사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음악사의 내용을 강화하고 감상곡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수업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음악사 또는 감상곡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사와 관련 감상곡들간의 연계성을 통하여 음악의 탄생 배경 및 음악적 특징 등과 함께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음악사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서양음악사의 개념

음악사는 한 마디로 음악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시대적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위대한 작곡가와 작품, 또한 이를 탄생하게 한 시대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음악적 지식만을 바탕으로 하는 해설에 그쳐서는 안 되고, 뚜렷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철저한 역사 자료 수집은 물론,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는 바탕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류,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음악 사상이나 사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고, 나머지는 종속적인 흐름으로 구별 지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되는 대상의 분야와 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누어진다.⁵⁾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총사 외에 일정한 시대에 한정해서 서술하는 것(시대사), 일정한 국가·지역·도시 등의 음악에 관한 것(지역사), 일정한 악곡의 종류에 관한 것(장르사), 그 밖에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것(악기사·연주 관습사·기보법 역사·음악 이론사) 등이 있다.

또한 기술방법으로 보면 옛 방식에 의한 역사 외에도 음악을 순전히 구성적인 음 현상으로 기술하는 것(형식사·양식사) 지역의 문화나 사회와의 연관에 의해 파악하는 것(음악 문화사·음악 정신사·음악 사회사) 등이 있다. 아울러 근래에는 세계 각 음악권(서양·이슬람·인도·동남아·극동)을 통일적인 관점에 놓고 세계 음악사를 서술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충분한 성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2. 서양음악사의 분류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버드 음악사전(Havard Dictionary of Music)을 중심으로 표준화되어있는 서양 음악사의 시대분류 및 그 내용을 알아보고 교과서 서양 음악사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4)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2), p.1188.

5) *Ibid.*, p.1188.

(1) *Havard Dictionary of Music* ⁶⁾

중세 음악(Mediaeval Music)⁷⁾은 대략 500년 전부터 1450년까지 르네상스 전 시대의 음악이다. 이 긴 시기의 관점에서 중세 음악은 마치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와 같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시대들을 짧은 시기 안에서 분할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

고딕 음악(Gothic music)⁸⁾은 고딕시대 건축, 조각, 미술과 연관 있는 문화적 혹은 현대 음악(music contemporary)이라 명하는 다양한 현대 작가에 의해 사용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고딕 음악은 1150년(페로티누스)으로부터 1450년(뒤파이)까지 즉, 초기 르네상스 전에 시기를 포함하여 알려졌다. 이 시기는 또한 남부보다 덜한 북유럽의 문화들을 언급하는 지리적 암시를 갖고 있다. 사실, 이태리 음악인 아르스 노바는 아마도 너무 세속적이고 활발한 르네상스 시기이기 때문에 고딕이라 불릴 수 없다.⁹⁾

르네상스 음악(Renaissance Music)¹⁰⁾은 중세 음악에 의해 선정된 1430-1650년 시대의 음악이다. 오늘날 르네상스 음악의 대략 시작을 1430년으로 표기하는데 동의하는 음악학자들은 시각적 예술들 안에서 르네상스와 함께 근접한 동시대의 획기적 작품을 만들었다. 즉, 던스터블(1385-1453), 뒤파이(1400-1474)와 벵슈아(1400-1467)는 르네상스 음악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특징을 폭 넓은 문화적 운동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특징들은 음악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마침내 초기 무대에도 있지 않았다. 더욱이 시각적 예술과 문학 안에서의 14세기 르네상스 음악은 마치 북부 프랑스와 벨기에를 배타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조직되어 온 이탈리아에서 번영했다.¹¹⁾

바로크 음악(Baroque Music)¹²⁾은 르네상스를 이어온 1600-1750년 시기의 음악이다. 바로크시대는 두루마리 작품과 함께 넘치는 타락한 멋 안에 터무니없는 의미로부터 결정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었다. 올바른 예술을 위한 그것들의 언급은 17세기 건축과 미술이 저하된 르네상스 스타일을 대표했다는 의견 위에 기초를 두었다. 바로크 음악은 모노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그리고 서창

6) Willi Apel, *Ha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7) *Ibid.*, pp.82-3.

8) *Ibid.*, p.350.

9) 비유적으로, 고딕이라는 말은 또한 고딕의 영성과 초월성의 암시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는 후기 작품들을 언급했다. 현대 작품들은 신 고딕이라고 불려진 유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10) *Ibid.*, p.724.

11) 르네상스 음악은 바로크 시대와 같이 문화적 발전을 전부 포함하여 음악 역사의 시대를 잘 정의하고 중요한 위치를 제공한다. 세기의 반하고도 1/4안에 시작된 새로운 음악적 발전은 확실한 사실이다.

12) *Ibid.*, pp.82-3.

(recitative)과 함께 약 1600년에 시작되었고, 바흐와 헨델의 죽음과 함께 150년 후에 끝났다.

고전주의 음악(Classic Music)¹³⁾은 그리스 로마 문학과 예술의 특징,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명칭화한 시기이다. 즉 우아함, 단순함, 가치, 그리고 스타일의 정확함, 그리고 올바름과 명료한 개념과 질서, 구체화하는 규범으로 간주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그것은 낭만주의와의 대조를 의미한다. 그것들의 직접적 선임자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혹은 아마추어들이 때때로 “낭만주의 전 모든 음악”을 간주하는 것 즉, 팔레스트리나부터 베토벤까지 낭만주의 악과 전 시기에 언급되었다. 다른 말로 “고전”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빠르게 사라지는 단명활동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확립된 가치와 명성의 음악을 명칭 한다. 여전히 다른 것들을 위해 그것은 오락을 위한 음악 혹은 보편적 음악에 반대한 것처럼 예술음악을 의미한다.

낭만주의 음악(Romanticism Music)¹⁴⁾은 1910년까지 계속된 19세기의 중요한 운동이다.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슈만, 그리고 쇼팽은 초기 낭만주의처럼 자주 지명된 기간인 1820년부터 1850까지 원칙적으로 일했다. 더 오랫동안 산 리스트와 바그너는 프랑크(1822-1890), 브루크너(1824-1896), 스메타나(1824-1884), 브람스(1833-1897), 무소르그스키(1839-1881), 차이코프스키(1840-1893), 드보르작(1841-1904) 그리고 그리그(1843-1907) 등이 했던 것처럼 1850년 후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활동을 만들었다. 그들은 약 1850년부터 1890년까지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중간 시기를 대표한다. 1890년부터 1910년까지 후기 로맨티시즘으로 알려진 운동의 마지막 부분은 1850-1880년 사이에 태어난 많은 수의 작곡가들 중에는 엘가(1857-1934), 푸치니(1858-1957), 말러(1869-1951), R. 슈트라우스(1864-1949), 시벨리우스(1865-1957), 그리고 레거(1873-1916)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리그, 드보르작, 그리고 알베니스와 같은 다른 후기 로맨틱 작곡가들은 음악에 있어 국민주의와 함께 특별히 동일시되었다.

현대 음악(Modern music)¹⁵⁾은 사실상 무의미할 만큼 너무 부정확하다. 시대의 기간은 저자들이 각자 서술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1890년을 현대음악의 시작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작곡가로는 엘가, R. 슈트라우스로 제한했다. 인상주의, 20세기 음악, 신고전주의와 시벨리우스 그들은 첫 번째로 귀한 일들을 일으켰다.

13) Willi Apel *Ibid.*, pp.175-6.

14) *Ibid.*, pp.737-8.

15) *Ibid.*, p.535.

(2) 현행 음악 편사학에서의 시대구분¹⁶⁾

기존의 시대개념으로서의 각 용어가 가지는 문제점, 당시의 실제적 음악 상황을 왜곡시키며 민족주의적 시각이 내포된 목적론적 음악사 서술, 새로운 연구결과로 나타난 동일 시기내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 및 지역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음악 문화의 구조, 나아가서 기존의 음악편사에 대한 총체적 반성은 음악사 서술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대구분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대표적 사례가 1980년대부터 가시적 모습을 보이며 현행 음악 편사학에서 가장 애용되고 있는 의식적이고 도식적인 100년 단위의 시대구분이다.

<표 2> 스탠리(Stanley) & 레이덤(Latham)의 시대구분¹⁷⁾

<i>Cambridge-Buch der Musik (Stanley & Latham, 1994)</i>	<i>Neues Handbuch der Musikwissenschaft (Carl Dahlhaus, 1975)</i>	<i>Geschichte der Musik, K. Wörner (1993)</i>	<i>Musik im Abendland H. H. Eggebrecht(1991)</i>
	고대	고대	
중세	중세 : 약 1100년 까지	중세	9세기-11세기까지
	12·3세기		12세기 Notre-Dame-Epoche und Ars antiqua (13세기)
	14세기		14세기
르네상스	여기서부터는 100년 단위로	여기서부터는 100년 단위로	초기근세음악 (15/16세기)
바로크			바로크
고전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19세기
20세기로의 전환기의 악파			
모더니즘			20세기

16) 김용환, 『악사의 시대구분 이대로 좋은가?』, 서양 음악학, 제2집 (서울 : 한국서양음악학회, 1999) pp.21-6.

17) G. Rienacker & H. Rosing, *Epochendefinition und Geschichtsschreibung* in: *Musikwissenschaft*, Reinbeck bei Hamburg (1998), p.419, 고훈,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대한 서양 음악사 지도 방안 연구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06), p.21에서 재인용.

위 도표에서 보이듯이 스탠리(Stanley) & 레이덤(Latham)의 저서가 기존의 관습적인 시대용어에 따른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저서들은 시대구분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면서 100년 단위를 도입하여 음악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시대용어를 회피함으로써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식화된 100단위의 음악사 서술은 적절하게 하나의 압축적 용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역으로 받고 있으며, 역사 편사 학에서 시대구분의 기준이 되는 역사 발전의 단면과 이에 관한 논증의 확실설에 대한 의문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발전에 단면에 대한 지적은 각 세기의 내적 시대 구성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¹⁸⁾

이렇게 음악사 서술은 학자의 입장과 관심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나 따라야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시대용어 및 그에 따른 시대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계와 음악학계가 되새겨 인식하여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서양음악사의 교육적 활용

음악사가 하나의 학문체제로서 성립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물론 중세, 르네상스시대에서부터 음악사를 저술한 것들이 출판되어 왔다. 그러나 음악이 역사의식의 소산으로서 한국적인 대상으로 취급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¹⁹⁾ 18세기 계몽주의 영향 아래 보통 교육으로서 학교 음악 교육이 대두된 후에도 음악듣기 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수업 영역이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학교의 교과목으로서 음악은 노래 부르기가 수업의 주된 내용이였다. 19세기에 음악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페스탈로치의 기초교육에 대한 사상과 연결되면서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창 교수방법에 대한 고려였다. 20세기 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음악 듣기가 음악 수업의 영역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음악 교육을 개혁한 케스텐베르크(L. Kestenberk, 1882-1962)는 가창이라는 교과 명칭을 음악으로 바꾸고, 그 성격을 체험을 중시하는 예술 교과로서 규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1920년대의 음악 교육과정에 음악사·음악이론 등의 듣기 수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교과서의 전체내용 중 특히 음악사 영역은 기초이론 과목의 한 부분으로 중·고등학교 음악

18) 이러한 방식은 달 하우스를 책임 편집으로 하며, 수십 명의 각 시기별, 장르별 전공 음악학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신음악사 핸드북'(총13권 : 그 중에서 음악사 부분은 제1권에서 제7권까지)에서 보여 지고 있다.

19) 이장직, 『음악과 사회』(서울 : 청하, 1988), p.151.

교육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에 속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음악을 감상하는데 이해를 도와주는 한 부분으로 교육되고 있다.

교육적,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음악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에게 범위가 넓은 다양한 음악 활동이 마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음악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음악 경험을 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서는 중요한 교재이다. 이것을 통해 창작지도, 기악지도, 감상지도, 가창지도의 다양한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음악사의 필요성, 작곡가의 작품, 시대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⁰⁾

음악 교육은 음악, 사회, 교육이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발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음악의 역사적 의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음악의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음악 본질에 접근을 통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학문의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학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밟아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음악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영역이든 그 영역에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이해하려면 음악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포괄적인 음악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교과과정을 잘 이수하게 되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전학년 단계의 음악사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음악적 개념들간의 관련성과 악이 부족해서 서양 음악사를 수업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시대별로 내용을 암기하고 관련곡만 듣는다면 학생들이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시대별로 음악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의 흐름에 따라 그 때에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영상매체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음악 수업에 참여한다면 음악사 개념이나 음악적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면서 나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가창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서양 음악사를 통해 음악의 변천과정을 사회적 배경·음악 양식·작곡가 및 작품 등을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음악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양 음악사의 지도 내용이 음악 요소와 구성, 개념에 따라 구조적이며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면 가창 연주 감상수업을 하는 가운데 지도하고자 하는 음악사 특정 요소와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음악적 기능을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음악 수업을 하는데

20) 박은경,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서술방식에 관한 연구 -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3), pp.31-4에서 재인용.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상활동을 통하여 서양 음악사에 음악 요소의 특징과 그 생성 원리를 이해하여 음악 작품에 내재한 미적 특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음악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음악사를 먼저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음악 수업은 그 수업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서를 가지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교과에 비해 심미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음악 개념이나 기능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학습 자세를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음악 수업이 즐겁고 자발적인 참여의 바탕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갈수록 그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습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서양 음악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자기 연수와 관련된 문화 행사의 참여나 전문 인력자원의 활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다양하게 접근해갈 수 있도록 수업 준비에 대한 노력은 교사의 중요한 몫이라 생각한다.

Ⅲ.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서양음악사

1. 8종 음악 교과서별 시대구분

(1) (주)교학사

음악사적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것만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이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다. 음악사적 내용보다 관련 감상곡의 내용을 자세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관련 감상곡만을 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감상시 유의할 점을 적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음악을 감상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음악 감상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3> 서양 음악사 분류 - 교학사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	5세기-18세기 중반		
고대 음악			
중세 음악	5세기-12세기		
르네상스 음악	14세기-16세기	팔레스트리나, 라소	
바로크 음악	17세기-18세기 중반	몬테베르디, 쾰리, 비발디, 바흐, 헨델	바흐 다성 음악 <푸가> 사단조
고전과 시대의 음악	18세기 말-19세기 초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하이든 실내악 현악 4중주곡 <종달새>, 모차르트 <레퀴엠>
전기 낭만과 시대의 음악	19세기 말-19세기 전반	베버,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쇼팽, 슈만	멘델스존 극음악 <한 여름 밤의 꿈>
후기 낭만과 시대의 음악	19세기 말-	리스트, 바그너, 베르디, 슈트라우스, 브람스, 생상스, 비제,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서곡 <1812년>, 바그너 가극 <탄호이저> 서곡·행진곡,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국민악과 시대의 음악	19세기 낭만파와 연관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글린카, 보로딘, 발라 키레프,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그리그, 시벨리우스, 스메타나, 드보르작, 알베니스, 포스터, 그라나도스, 맥도웰, 블로흐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야>,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근대·현대의 음악	1890년-1945년 이후	드뷔시, 쇤베르크,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헨데미트, 메시앙, 코다이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2) (주)대한교과서

시대적 특징의 사실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서양 음악사 부분과 서양 음악 감상부분으로 나뉘어 시대적 배경, 음악적 특징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있다.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는 달리 mini감상은 동시대의 유사한 장르의 곡을 추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더하기’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서양 음악사 분류 - 대한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관련 감상곡	mini감상	+더하기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	고대-1750				
고대 음악					
르네상스	기원후 4-14세기	팔레스트리나		팔레스트리나 <마르첼루스 미사>	
바로크 음악	15-16세기	비발디, 바흐, 헨델	비발디 합창곡 <글로리아>,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3번 제2곡 <에어> 헨델 <라르고>		파헬렐 <카논 D장조>
고전파 시대	1600-1750	글루크, 하이든,	하이든 현악4중주	글루크	베토벤 피아노

고전파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중달새>, 모차르트 교향곡 제 40번 K. 550	<정령들의 춤>	3중주 <대공>
전기 낭만파 시대 전기 낭만파 음악	19세기	베버,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쇼팽, 슈만	슈베르트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쇼팽 폴로네즈 <군대>	슈만 <어린이의 정경> 중 '트로이 메라이'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후기 낭만파 시대 후기 낭만파 음악	19세기 말-20세기 초	리스트, 바그너,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비제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국민악파 시대	19세기 말-	큐이, 보로딘, 발라키레프,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드보르작, 그리그, 시벨리우스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그리그 모음곡 <페르퀀트>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어>
서양 근대 현대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슈톡하우젠	드뷔시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 홀스트 모음곡 <혹성>		

(3) (주)두산

한 단원에서 서양 음악의 이해를 다루고 있어 한 흐름에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 시대의 배경이 나와 있어 음악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음악 특징 또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5> 서양 음악사 분류 - 두산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고대 음악	선사시대-5세기		
중세 음악	6세기-15세기 중반		

르네상스 음악	1450년-1600년		팔레스트리나 <마르첼루스 미사>
바로크 음악	1600년경-1750년	몬테베르디, 윌리, 코렐리, 비발디, 라모, 바흐, 헨델	바흐 <브란덴 부르크 협주곡 제5번>, <토카타와 푸가>, <G선상의 아리아>,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고전파 음악	1770년-1825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현악 4중주 <중달새>,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교향곡 제40번>,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전기 낭만파 음악	1825년-19세기 말	베버,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슈만	베버 <무도회의 권유>
후기 낭만파 음악	19세기 후반	베르디, 푸치니, 비제, 바그너, 말러, 브루크너, R.슈트라우스, 브람스, 생상스, 차이코프스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비제 <카르멘>
국민악파 음악	19세기 후반	글린카,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스메타나, 드보르작, 그리그, 시벨리우스, 바르톡, 코다이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근대 음악	19세기 말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베버른, 스트라빈스키,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현대의 음악	1850년 이후	쇤베르크, 힌데미트, 세페르, 슈톡하우젠, 존케이지	거윈 <랩소디 인 블루>,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4) (주)박영사

서양 음악사를 시대적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것이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시대별로 음악적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로 사용된 형식과 대표적인 작곡가들을 제시하였다. 관련 감상곡은 ‘감상하기’ 영역에서 설명하였고, ‘정리하기’에서는 감상곡을 듣고 느낌을 말해보거나 음악적 특징

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곡이 제시되어 있고, 음악사와 음악 감상영역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졌으며,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표 6> 서양 음악사 분류 - 박영사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중세 음악의 변천			
르네상스 음악	1450-1600	팔레스트리나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리의 미사>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1600년경-1750년	바흐, 헨델	헨델 <나를 울게 버려두오> 레시타티브 일부분 <왕궁의 불꽃놀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바흐 <사단조 푸가>
고전파 음악과 소나타 형식		모차르트, 베토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열정>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자유의 향기 낭만파 음악	18세기	베버, 리스트, 바그너, 베르디, 구노, 쇼팽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쇼팽 <환상 즉흥곡>, 리스트 교향시 <전주곡>,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의 제 1막 전주곡과 제 3막 전주곡,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결혼의 합창'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또 하나의 낭만 국민악파		드보르작, 스메타나, 글린카,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무소르그스키, 시벨리우스, 립스키코르사코프, 그리그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무소르그스키의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필란디아>,

			그리그 <페르퀀트> 제 1모음곡
근대·현대의 음악	20세기	드뷔시, 라벨, 프로코피에프, 쇤베르크, 거쉰, 존케이지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라벨의 발레곡 <볼레로>, 프로코피에프의 <고전 교향곡> 중 '가보트', 쇤베르크의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31,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존케이지 <4분33초>

(5) 세광음악출판사

시대별로 음악적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대표적 작곡가 및 작품과 함께 약보가 제시되었다. 음악사적 내용은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작품 설명이 되었으며, 악보를 제시하여서 음악사적 내용과 함께 시대별로 음악가의 형식과 장르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로 서양 음악사를 접근하고 있다. 고전과 음악과 낭만과 음악에서는 각각 동·서양의 종교 음악을 비교하는 것과, 한국사, 음악사, 세계사 연대 비교표를 제시하여서 동·서양의 음악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비교적 많은 관련 감상곡을 제시하였으며, 각 감상곡을 들음으로써 음악형식을 알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7> 서양 음악사 분류 - 세광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고대·중세의 음악	4세기-14세기		
르네상스 음악	1450-1600년	조스캥 데 프레, 라소, 팔레스트리나	조스캥 데 프레 <아베마리아>
바로크 음악	1600-1750년	몬테베르디, 윌리, 피셀, 비발디, 바흐, 헨델	비발디 <사계> 중 '봄',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1번>, <토카타와 푸가>, 헨델 <수상음악>
고전과 음악	1750-1825년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세레나데 13번>,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

			교향곡 <운명>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승어>,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론도카프리치오소>, 서곡 <팽갈의 동굴>, 쇼팽 <녹턴 No.2>, 베버 <무도회의 권유>, 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중 '정경', 교향곡 <비창>,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단조>
전기 낭만파 음악	1820-1850년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후기 낭만파 음악	1850-1910년	푸치니, 비제 바그너, 브람스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노래의 전당',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라트라비아타>,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갠 날'
국민악파 음악	19세기 후반-	글린카, 스페타나, 보르딘, 큐이, 발라키레프,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드보르작, 그리그	드보르작 현악 4중주곡 <아메리카>, <첼로협주곡나단조>,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모음곡 <페르퀀트> 중 '아침기분', 보르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근·현대 음악	19세기 말 이후-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스트라빈 스키, 바르톡, 메시앙, 슈톡하우젠, 오르프, 케이지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쇤베르크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 <봄의 제전>, 로드리고 기타 협주곡 <아란쾨스>, 라벨 <볼레로>, 거쉰 <랩소디 인 블루>, 오르프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6) (주)천재교육

음악사의 흐름을 각 시대별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삽입시켜 음악사 내용 전개를 하고 있다. 각 시대의 특징을 그림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련 감상곡은 각 악장별 특징의 악보를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표 8> 서양 음악사 분류 - 천재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고대 음악	기원전 800-476년		
중세 음악	476년-1450년		
르네상스 음악	1450년-1600년	팔레스트리나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리의 미사>
바로크 음악	1600년-1750년	몬테베르디, 스카를라티, 바흐, 헨델, 글록, 파헬렐, 타르티니	
고전파 음악	1750년-1825년	하이든, 보케리니, 모차르트, 케루비니, 베토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낭만파 음악	1825년-1875년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베르디,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곡 OP.114 <승어>,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국민악파 음악	1875년-1899년	무소르그스키, 그리그, 립스키 코르사코프, 스메타나,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립스키 코르사코프 오페라 <사드코>, 그리그 <페르퀀트 모음곡>
근대음악	1900년-1945년	드뷔시, R.슈트라우스, 쇤베르크, 홀스트,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현대 음악	1945년-현재까지		강석희 <프로메테우스여 오라>

사) 도서출판 태성

서양 음악사는 이해 영역의 마지막 부분 ‘이해 영역 15’에서 1. 시대구분 2. 악보 발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서양 음악사를 시대적 개념 및 배경과 함께 음악 양식과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대표적인 작곡가의 이름을 제시하였다. 음악 특징 및 시대배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감상 영역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작곡가와 제시된 악곡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감상 요점’을 통해 제시된 감상곡을 듣고 곡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몇몇의 감상곡에서는 음악적 특징이나 장르나 비슷한 다른 감상곡과 비교해 보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곡과 비교해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작곡가를 제시하고 있다.

<표 9> 서양 음악사 분류 - 태성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감상곡
중세	-약 1370년		
르네상스	약 1370 -1580년경	조스캥 데 프레, 랫소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로 미사>
바로크	1580년경 -1730년	몬테베르디, 쉴츠, 윌리, 피셀, 바흐	바흐 <인벤션 다장조>
고전	1730년경 -1800년경	글룩, 바흐, 레오폴트 모차르트, 모차르트, 하이든, 파이지엘로, 케루비니, 베토벤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베토벤 교향곡 <운명>
낭만	1800년경 -1880년경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리스트, 멘델스존, 슈만, 바그너, 베르디 차이코프스키, 베버, 쇼팽, 브루크너, 브람스, 푸치니, 라흐마니노프, 그리그,	쇼팽 <마주르카 작품 17 제4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20세기	19세기 이후경	아이브스, 바르톡, 바레즈, 오르프, 메시앙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라벨 <볼레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아) 현대음악출판사

전개적 순서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설명한 뒤 음악의 특징을 명확히 묘사하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른 자료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현대 음악에서는 점층적으로 시대적 사조를 나열하고 있다. 각 시대별 특징을 설명한 후, 그 시대에 맞는 관련 감상곡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0> 서양 음악사 분류 - 현대

주제별 구분	시대구분	연도	작곡가	관련 감상곡
음악의 시작과 다성 음악	고대의 음악	기원전4000 -3000년경		
	중세의 음악	6세기말경 -14세기 초	마쇼, 란디니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루스의 미사>
	르네상스 음악	14세기 말 -16세기 초	팔레스트리나, 랫소 조스캥 데프레	
기악음악의 발전	바로크 음악	1600-1750	비발디, 바흐, 헨델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바흐 브란덴 부르크 <협주곡>
	고전파 음악	1750년경 -1820년경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대공>
음악의 낭만파 민족주의	낭만파 음악	1820-	슈베르트, 쇼팽, 슈만 바그너,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소나타 <가단조>,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국민악파 음악	19세기 중엽	발리키레프, 보르딘, 큐이,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스메타나,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그리그, 알베니스와그라나도스, 엘가, 본 윌리암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근대·현대음악	20세기	드뷔시, 오르프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 음악은 새로움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발달하였다. 그래서 음악사도 음악에서 무엇이 새롭게 나타났는지에 따라 서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예술분야에서 이미 사용한 시대 구분 명칭에 따라 음악의 발달을 서술하는데, 음악사의 시대구분이나 서술의 관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채택한 서술방식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음악의 특성에 따라 시대별로 정리, 소개하고, 감상곡을 통해 작곡가의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다음 작품의 악곡해설과 주제부분의 악보를 제시해 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교학사,

대한, 박영사, 세광).

다른 방법은 전체적인 서양음악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감상곡은 따로 제시해주는 방법도 있다(두산, 태성, 현대).

또 다른 방법은 서양 음악사를 그림과 같이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만 한 뒤 시대별로 설명하고, 감상부분이 바로 연계되지 않고 우리 음악사와 감상 여행(서양 음악 감상곡과 국악 감상곡)이 섞여 제시된다.

2. 8종 음악 교과서별 내용분석

(1) 서술방식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교과서마다 시대구분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서양 음악사에서는 소수 작곡가들의 곡만이 제시되어 있어 균형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중세 및 르네상스의 음악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초기 서양 음악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초기 음악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작곡가들을 내용에 담아 감상곡을 선정 할 때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음악사를 이해하기 위한 음악 용어 개념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작곡가의 생애연대, 영문표기, 태생지가 어딘지 등 제시가 되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1> 교과서 서술방식에 문제점

	작곡가	균형성
교학사	· 작곡가만 제시 (고전, 국민악파, 근·현대)	· 작곡가, 내용면이 너무 간략한 부분이 있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대한	· 작곡가명만 제시해 놓고 사진과 설명이 없다.	· 작곡가와 내용면에 자세한 설명 부족
두산	· 대부분 작곡가 사진이 없다.	· 감상 부분이 시대별 배열로 되지 않았다.
박영사	· 낭만 이전은 음악사 부분에서 작곡가에 대해 설명이 없다. (단, 감상곡에 수록된 작곡가의 설명만 제시됨)	· 내용면에서 작곡가를 다루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 · 낭만 이후 감상곡에 수록된 작곡가 몇 명은 사진과 간략한 설명이 있다.
세광	· 작곡가이름만 제시, 연도와 작곡가의 태생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 대표적인 작곡가 한명의 설명만 자세하게 한다.
천재	· 바로크이전까지의 작곡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작곡가와 작품만 제시하고 있다. · 감상곡에 있는 작곡가만 설명이 있어 균형성이 없다.

태성	· 작곡가에 대한 설명 없음. · 감상곡에 있는 작곡가만 설명	· 감상곡에 있는 작곡가만 설명이 있어 균형성이 없다.
현대	· 중세 작곡가들은 제시만 하고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다양하지 않다.	· 타 출판사 교과서와 달리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다양하지 않다.

(2) 현행 교과서의 오류 및 정정할 내용 (생애, 연도, 사진, 작품명 중심으로)

<표 12> 현행 교과서의 오류 및 정정 내용 (작곡가와 작품부분 중심으로)

	연도표기	작품
교학사	· 글린카 : 1803-1857년 → 1804-1857년 · 보로딘 : 1834-1887년 → 1833-1887년 · 발라키레프 : 1837-1919년 → 1837-1910년 · 알베니스 : 1850-1909년 → 1860-1909년 · 팔라 : 1876-1946년 → 1876-1951년 · 메시앙 : 1908- → 1908-1992년	
두산	· 비발디 : 1675-1741년 → 1678-1741년 · 베르디 : 1813-1883년 → 1813-1901년 · 코플랜드 : 1900- → 1900-1990년	
대한	· 글린카 : 1804-1850년 → 1804-1857년	·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혹성’을 → ‘행성’으로 표기.
박영사	· 프로코프예프 : 1893-1953년 → 1891-1953년	
세광	· 보로딘 : 1834-1887년 → 1833-1887년	
천재	· 스카를라티 : 1659-1735년 → 1660-1725년	
태성	· 코렐리 : 1653-1703년 → 1653-1713년 · 스트라빈스키 : 1882-1997년 → 1882-1971년	·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가단조’ → ‘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현대	· 라소 : 1532-1594년 → 1532경-1594년 · 조스캥 데 프레의 영문표기에서 J. Desprez → Josquin Des Prez로 띄어쓰기 · 슈베르트 : 1786-1826년 → 1797-1828년	

이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현실로 볼 때 교과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배워야 할 내용은 많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음악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

는 고등학교 음악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의 구성이나 학습 방법에 있어서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학습한 것을 토대로 고등학교 음악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종합적인 단계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체험과 음악성을 개발시켜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작곡가의 작품 및 음악적 양식, 그 음악의 시대적 배경, 더 나아가서 음악사적인 흐름까지도 꼭 필요하지만 현실의 음악 교육이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IV. 효과적인 서양음악사 교수·학습 연구

1. 수업 연구 방향

(1) 시대사와의 연계

모든 학문은 역사가 있으며 역사라는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사를 알 필요가 있다. 음악 교육 철학자 리머(B. Reimer)는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 배경 지식은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지각과 반응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고 적절하며 필요하다면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등의 정보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¹⁾

또한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의 두 저자인 찰스 레온하드와 로버트 하우스는 성공적인 음악 역사의 지도는 양식에 대한 이해와 양식의 발달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이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한다.²²⁾

음악사학자 H.M. Miller는 그의 저서 「음악 감상을 위하여」에서 음악의 역사를 일반적인 역사와 연관 지어 공부한다면 한층 의의가 커진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는 음악 외적인 사건이 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²³⁾ 또한 음악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음악 감상에 있어 또 하나의 열쇠는 작곡가의 전기이다. 이는 지리적 영향, 직업적 활동, 창작의 환경에 의해 해당 작곡가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사 수업 연구를 위해 Miller가 제시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업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2) 감상곡과의 연결

거의 모든 교과서가 감상과 음악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감상이 음악사 수업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감상은 가창, 기악, 창작과 함께 활동영역의 하나이다. 감상 수업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악곡을 듣는 것은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수준보

21) B. Reimer. (1990), p.172

22) 이들의 주장을 통해 음악사를 공부하는데 있어 시대사와 함께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3) 그는 음악사를 알기 전에 시대사를 알아야 하는데 시대사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교회사, 둘째, 정치사, 셋째, 다른 예술(회화, 조각, 건축 등), 넷째, 소설이나 시, 연극이다. 그리고 음악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그 시대 많이 쓰인 형식, 둘째, 음악적 스타일, 셋째, 작곡가이다.

다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접하게 하여 음악의 미적 경험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음악사와 연결시켜 듣는다면 학생들은 감상곡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찰스 호퍼(Charles Hoffer)의 「음악 감상의 이론과 실제」의 역자인 김동현은 역자의 말을 통해 음악 감상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음악사적 이해’라고 말하며, 이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 세계는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이것은 음악에 있어서의 시대사적 보편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4)

현재 학교에서의 음악사 수업은 설명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방대한 분량을 설명으로 소화하기에는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학생 입장에서는 지루해지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업에 있어 시각적인 면을 활용한다면 교사는 보다 다양한 각도로 수업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따라서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적인 면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2. 수업 모형 자료

본 연구에서 제시될 수업 그림 자료에서 음악사의 시대는 대부분이 교과서가 다루고 있으나 교과서 분석 결과 미흡하다고 보여 지는 고대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의 전체적인 시대를 다루고자 한다.

24) 따라서 한 개인의 음악은 시대사적 보편성과 개인의 특수성이 엮어 내는 조화이며 음악사적인 이해를 통해야 올바른 감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Hoffer, (1986), p.3

25) 미국 SOKONI사가 연구한 오감의 인상실태와 정보의 기억정도, 청기억과 시기억의 발달 차이를 연구한 통계 자료와 F.W. Semedely의 연구 조사표에 따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시각이 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청각이 11%로 그 뒤를 잇는다.



서양음악사



고대 음악 (선사시대-5세기)
 중세 음악 (500-1450)
 르네상스 음악 (1450-1600)
 바로크 음악 (1600-1750)
 고전파 음악 (1750-1820)
 낭만파 음악 (1820-1900)
 근대 및 현대 음악 (20세기)



[그림 1]

[그림 1 설명]

먼저, 음악사라는 흐름의 공간적 배경을 서양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고대의 음악을 언급할 때 고대 이집트나 중국의 음악을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후의 그리스 로마 서양인들이 자신의 역사의 뿌리로 삼는 시대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정리된 서양 음악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여 보고, 음악적 특징과 작곡가의 작품을 살펴보며 서양 음악사를 정리하여보기로 한다.

한 곡의 음악 작품은 개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며, 음악가는 작품을 통해서 당시대의 시대 관을 표현한다는 일종의 목적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와 작곡가의 생활을 통해 음악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음악을 단순히 듣는 즐거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획득하고 각 시대의 역사와 사회, 문화, 그리고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1) 고대 음악



[그림 2]

[그림 2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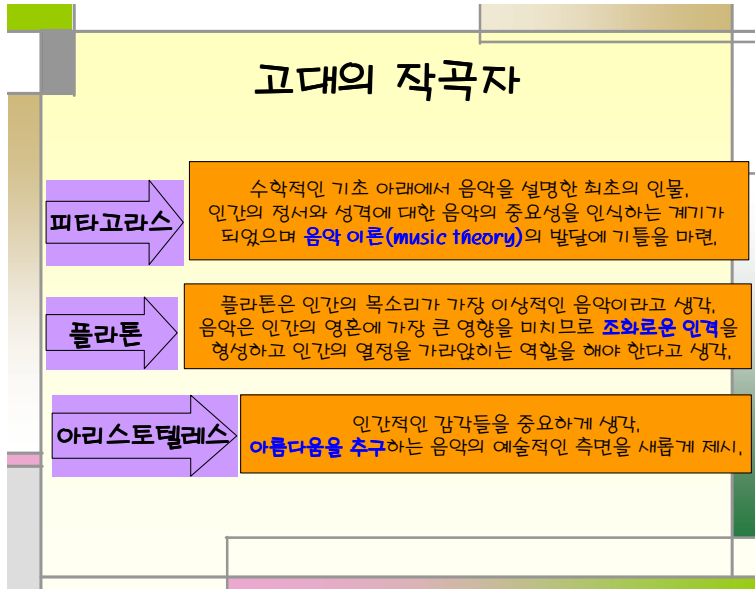
고대의 음악은 고대의 이집트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의 중간인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²⁶⁾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등의 나라에서 발달했는데 로마가 이들 나라를 통일할 때까지는 각기 그 지방에서 발달하였다.²⁷⁾

더구나 고대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음악을 단지 제사와 오락뿐만 아니라 매우 지적으로 다루었으며 음악에 대한 철학적, 윤리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논의되었고 과학적인 연구를 했으며, 음악을 교육상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음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고대의 여러 나라에 음악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신화나 종교 경전들에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민족들은 신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신수설(神授說)과 자연 발생설(自然發生說)을 믿었다. 대부분의 기록은 관악기가 발달되어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었다는 것 등을 전해준다. 고대의 음악은 기보된 형태로는 전혀 남겨지지 않았다.

26)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 페니키아인 팔레스티나(Palestina)를 뜻한다.

27) 그리고 인도와 중국 등의 민족도 대단히 우수한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3]

[그림 3 설명]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 및 음악학자들에 의해 고대 그리스 음악을 추측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두 음정의 관계를 수적 비율로 계산하였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그 원리를 대장간에서 발견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가던 중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울린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여러 망치들의 무게를 달아보니 각기 다른 비율로 음정을 구성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우주의 조화로우미 음악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음악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이후 음악 이론의 발달에 기본을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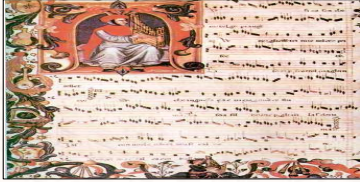
피타고라스의 이론을 계승하고 크게 확장시킨 플라톤은 음악에 수적 해석을 확대 시켰고, 그와 동시에 윤리적 접근을 더욱더 강조하였다. 음악이 사람에게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좋은 음악만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정신의 발달을 위한 원천으로서 음악 교육적 가능성보다는 일반 교양적 수단으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더 강조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미적 감정의 도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며, 도덕성의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과라고 말하겠지만, 다만 심정의 도야와 여가의 선용, 휴가 등을 위한 일반 교양적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만을 인정하려 하였다.

(2) 중세 음악

중세음악 (500년 - 1450년)

<p>역사적 배경</p> <p>봉건사회제도의 그리스도교 사회로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발전과 다성 음악의 시작, 세속 음악의 출현 등이 음악의 주류를 이룬다.</p>	<p>음악적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로마네스크 음악 2. 다성 음악-고딕 음악 3. 아르스 노바 4. 세속 음악 5. 기보법의 발달
---	---



[그림 4]

[그림 4 설명]

중세는 봉건사회제도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도교의 사회로서 정치문화에 있어서 강력한 종교적 지배를 받던 시대이다. 중세 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음악은 주로 그레고리오 성가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성가는 10세기까지 발전하고 11세기에는 다성 음악(Polyphony)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²⁸⁾

이에 비해서 음유시인(吟遊詩人)의 노래와 가곡을 비롯한 세속음악은 현세적인 인간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하며 음악의 자율적인 발전을 존중하고 또 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²⁹⁾ 중세 음악은 대체로 로마네스크 음악³⁰⁾, 다성 음악-고딕 음악³¹⁾, 세속 음악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28) 교회 음악 :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313년) 교회 음악이 발달하고 그레고리안 성가가 많이 불리워졌다.

29) 세속 음악 : 12~13세기에 발달된 세속 음악은 8세기경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던 음유시인이 점차 확대되어 11세기경부터는 프랑스 동남부에 트루바두르(Troubadour)라는 가인이 생기고, 북부에는 트루베르(Trouveres)가 탄생하였으며, 12세기말에는 도이칠란트에 민네징거(Minne Sanger)가 탄생되었는데 15세기경에는 시민 계급 사이에 확대되어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가 되었다.

30) 로마네스크 음악(Romanesque Music)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었던 음악으로서 이것은 로마네스크 미술과 통하는 양식이다. 그 주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의 교회음악으로서, 고대 음악처럼 단선율이지만 대체로 성악이며 기독교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다. 이 음악은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러 그레고리 성가로 절정을 이룬다.

31) 다성 음악-고딕 음악(Gothic Music)의 발달은 오르가눔(Oraganum)의 탄생으로 시작된다. 서양 음악 구조의 두 가지 큰 법칙은 화성법과 대위법인데, 9세기 중엽 서양 음악에서 최초의 대위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대위법의 기초가 바로 오르가눔에서 비롯되었다.

중세음악 대표적 작곡가



||| 던스터블 →

- 15세기 영국의 최대의 작곡가로서 뱅시와(Bincnois) 뒤파이(Dufay) 등 대륙 특히 부르고뉴 악파의 작곡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마쇼 →

- 마쇼의 작품은 이들 가곡형식을 확립한 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음악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림 5]

[그림 5 설명]

15세기를 앞둔 유럽에는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부터 중앙집권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서양음악의 발달을 주도해 오던 프랑스가 1337년부터 1477년까지 영국과 백년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백년전쟁은 프랑스에게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안겨 주었지만, 전쟁 기간 중 영국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영국의 음향이 대륙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음향을 대륙에 알리는데 가장 공헌이 컸던 작곡가는 바로 던스터블(John Dunstable)인데, 그는 백년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에 주둔했던 영국군 사령관인 베드포드 백작의 수행 음악가로서 100여 작품에 달하는 매우 영국적인 작품을 작곡하였다.³²⁾

기욤 드 마쇼(Guillaume de Machaut, 1300년경-1377. 4)는 프랑스의 북부지방에서 성장했다. 그의 생애에는 불확실한 점이 많으나, 보헤미아 왕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1337년 랭스대성당의 참사회원(參事會員)으로 활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³⁾

32) 던스터블이 남긴 작품 중에 세속 음악은 2-3개 정도의 세속 노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0여개에 달하는 종교 음악이다. 약 40개의 모테트는 3가지 양식으로 작곡되었다. 첫째 가장 복잡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모테트들은 동형리듬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많은 경우 그 기법은 성가 선율이 있는 테노르 성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성부에 적용되었다. 둘째로 몇 개의 모테트는 최상성부에 성가의 선율이 변형되어 나오며, 셋째로 성가 선율을 전혀 차용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작곡되었다.

33) 미사곡, 모테트, 세속(世俗)상송 등을 작곡했고, 13세기 교회의 폴리포니 기법과 음유시 14세기 프랑스의 아르스노바 음악을 확립한 가곡의 감각적인 표현을 종합하여 새롭게 하였다. 시인으로서도 론도, 발라드 등의 시형 확립에 기여하였다.

(3) 르네상스 음악


르네상스 (1420년 - 1600년)

○ 역사적배경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음악'이 꽃피기 시작,
정치 사회적으로 봉건사회가
무너져 가고 시민계급이 성장,
인본주의 정착이 가속화됨,

○ 음악적특징

1. 12교회 선법이 사용
2. 무반주 합창곡(A cappella)
3. 세속성악음악 - 마드리갈
4. 불협화음의 사용
5. 악보의 인쇄



[그림 6]

[그림 6 설명]

‘르네상스’란 서유럽 여러 나라의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난, 고대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의 문예부흥 운동으로 중세 말에 대한 ‘고딕’이나 ‘바로크’와 같이 미술사에서 빌려온 용어이다.³⁴⁾ 미술 등 문예의 경우에는 많은 부활을 보였지만 음악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재탄생’은 없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는 인간정신의 재탄생으로서 인본주의적 예술창작 태도, 조화 및 비례의 중시, 합리적인 기법의 탐구, 명확한 표현 등을 중심 내용으로 음악에서 이러한 양식상의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아쟁쿠르에서의 영국군의 승리(1415), 콘스탄티노플의 함락(1453), 100년전쟁의 종결(1453),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1492) 등이 있다. 미술, 문학, 음악은 필립 선왕(1419-1467)과 샤를로 용담왕(1467-1477)의 보호 아래 부르그뉴 궁정에서 화려하게 개화하였다.³⁵⁾

르네상스 음악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영국·이탈리아·독일 등으로 퍼졌다. 조스캥 데 프레와 랫소가 중심이 된 네덜란드 악파와 영국의 작곡가들은 3성부의 다성 음악을 작곡하였고, 네덜란드 악파에 의해 모방 대위법이, 루터에 의해 찬송가 형태가 확립되었다. 르네상스 음악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발달했고, 로마에서는 교회 음악이 현저하게 발달했으며 오라토리오에 있어서도 크게 발달했다.³⁶⁾

34) 이 말의 문자대로의 의미는 ‘재탄생’으로서, 고대 문화의 부흥을 뜻하는 말이었다.

35) 1454년의 회전식 활자 인쇄술 발명은 궁극적으로 음악 보급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36) 르네상스 기간에 있어서 음악의 성장에 가장 큰 공로 중 하나는 바로 음악 인쇄의 시작일 것이다. 또한 16세기 초에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에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즉 지금까지는 한 성부씩 작곡하여 왔으

르네상스 대표적 작곡가



팔레스트리나
(G.P. Palestrina 1525년 ~ 1594년)
로마의 작곡가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Andrea Gabrieli 1510년 ~ 1586년)
베네치아 작곡가

[그림 7]

[그림 7 설명]

로마에서의 대표적 작곡가인 팔레스트리나(G. P. Palestrina 1525년경-1594)는 자유로운 대위법으로 작곡하고 복잡해진 대위법으로 단순화하고 한 음에 한 가사를 붙이는 새로운 시도와 무반주(A Cappella)양식의 교회 합창곡을 도입하여 미사곡을 비롯한 많은 종교곡으로 작곡하였다.

베네치아에서는 안드레아 가브리엘리(Andrea Gabrieli 1510-1586)와 그의 생질 조반니 가브리엘리(Giovanni Gabrieli 1554년경-1612)가 성악을 화려하고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특히 오르간을 비롯한 기악음악을 많이 발전시켰다. 같은 무렵에 독일에서도 르네상스적인 음악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델란드 출신 랏소(Orlando de Lassos 1532년경-1594)인데 그는 많은 교회용 음악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합창곡을 썼는데, 그의 작품은 강렬하고 분방하며, 불협화음과 선율의 대비를 과감하게 썼다.

나 여러 성부를 하나의 전체로서 동시에 생각해 내고 쓰기 시작하여 총보(SCORE)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4) 바로크음악

바로크 (1600년 - 1750년)

<h3 style="text-align: center;">📌 역사적 배경</h3> <p>르네상스 시대에 싹튼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팽배해져서 점차 시민계급을 성장시켰고, 절대군주국이 성장했으며, 새로운 발견과 발전이 있었다.</p>	<h3 style="text-align: center;">📌 음악적 특징</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음계 단음계가 확립, 조성 2. 오페라 등의 극음악 탄생 3. 기악양식 발전과 기악곡 발달 4. 대위법 작곡 기법이 절정
	

[그림 8]

[그림 8 설명]

바로크라는 용어는 1746년에 노엘 플뤼쉬(Noel Pluche)가 음악을 ‘musique chantante(유연한 음악)’ 과 ‘musique baroque(거친 음악)’으로 구분하면서 다소 저질스러운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 시대는 절대 군주의 시대로, 변화와 모험, 이성과 신앙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음악의 중심이 교회로부터 궁정이나 귀족사회로 옮겨지게 되면서 교회 선법은 점차 약화되고, 장조와 단조의 중심적 역할이 뚜렷해졌다. 그리고 다성 음악이 절정에 이르면서 화성 음악이 발달해 갔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의 양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옛 겹선율에 의한 복음악이 모두 쇠퇴해버린 것은 아니며 당분간 친구 두 개의 양식이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며 사용되었다. 이 두 개의 조류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등의 고전음악에서 화해하고 교류하게 된다. 이 르네상스 정신의 최고의 발전시대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부터 18세기 전 반기에 바그나 헨델이 대위법적인 음악을 완성한 복음악의 전성기에 이르는 약 150년간을 바로크음악시대라고 부른다.

바로크시대의 기악음악은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는 악기의 발달과 양식의 확립, 새로운 악기의 출현으로 성악음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건반악기는 독주용 악기로도 사용되었으나 통주저음의 필수적인 악기로 어떠한 기악음악에도 나타나게 되었다.³⁷⁾

37) 바로크시대에 이르러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오르간을 위시하여 클라비코드, 쳄발로 등은 독주나 합

바로크의 대표적 작곡가 및 주요작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 1685 ~ 1750, 독일)
음악의 아버지, 대위법 음악의 완성자,
[작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6번' [1721] 등.



헨델 (G. F. Handel : 1685 ~ 1759, 독일)
음악의 어머니, 정립된 화성으로 극적인 음악을 작곡,
[작품] '수상음악' [1717] 등.



비발디 (A. Vivaldi : 1678? ~ 1741, 이탈리아)
오라트리오, 오페라, 기악곡을 많이 작곡,
[작품] 협주곡 <사계> 등.

[그림 9]

[그림 9 설명]

바흐가 나오기 전 17세기경에는 음악은 여러 가지 양식이 잡다하게 생겨 혼란을 빚을 정도로 분과작용을 거듭하고 있었다. 18세기 전반에 있어서, 바흐를 이러한 여러 갈래의 양식을 화해시켜서 독자적인 양식을 수립한 이를테면 바로크 음악을 집대성한 위대한 대가라고 하겠다. 바흐는 주로 과거의 전통을 따르기는 했으나, 당시의 새로운 양식도 흡수하여 대위법적이면서도 새로운 양식을 도입한 독특한 음을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음악 양식, 이를테면 교향곡이니, 협주곡이니, 현악4중주니 하는 이른바 고전주의 양식을 수립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와는 판이한 한계를 갖는 바흐는 바로크 음악의 맨 마지막 정상을 이룬 대가이다.³⁸⁾

헨델은 종교적 감동을 주는 서정적 표현에 뛰어났고, 오페라 작품 속에 축적한 선명한 이미지를 환기시켜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다. 그의

주용 악기로 인기가 높아 많은 작품을 남겼다. 1709년에는 크리스토포리(B. Cristofori, 1655-1713)가 만든 피아노(Clavicembalo col Piano e Forte)가 등장하여 피아노 문헌의 첫 장을 열었다. 현악기 부분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는데, 르네상스를 점유했던 비올라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현악기군을 이루는 바이올린족으로 대체되어 관현악 음악의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크레모나(Cremona) 출신의 아마티(N. Amati), 파르네리(G.B. Guarneri), 스트라디바리(A. Stradivari) 등의 바이올린 제작자들이 우수한 악기를 만들어 바로크 현악을 더욱 수준 높은 음악으로 끌어 올렸다.

38) 바흐는 음악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대대로 이 가족에서는 유명한 음악가가 많이 나왔다. 전 후 200년 동안에 약 50명의 음악가가 나왔다니 대단한 음악적인 가계라고 하겠다.

음악은 독일적인 진지함, 이탈리아적인 산뜻함, 프랑스적인 장대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바흐의 작품은 반세기 동안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반면, 헨델은 생전에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헨델의 두 가지 중요한 업적은 바로크 말기의 음악 보급에 기여했다는 점과, 18세기 중엽의 새 양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많은 것들을 예시해 주었다는 점인데 심지어 낭만과 음악까지 예시해 주고 있다.³⁹⁾

안토니오 비발디는 1678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1741년 빈에서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인 동시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였으며, 또한 교육가이기도 하였다. 비발디는 붉은 머리였기 때문에 항상 ‘빨강머리의 사제’라고 불리웠었다. ‘사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곡으로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선조가 된 곡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비발디는 교회용, 행사용 등등으로 몇 개 악장으로 꽤 긴 곡을 평균 2, 3일에 한 곡씩은 써야 할 처지였다. 사보가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만큼 초고속으로 작곡을 한 결과 그는 협주곡만 해도 450곡이나 남겼다.

(5) 고전 음악

고전 (1750년 - 1810년)




‘프랑스 혁명’으로 중산층이 영향력 있는 위치로 발돋움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대중화가 시작됨으로써 음악은 간결하고 선명한 선율을 사용하고, 화성음악이 확립되었다.

<역사적 배경>

[그림 10]

39) 헨델은 일반 청중들에게는 오라토리오만 작곡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 생애 동안 많은 수의 오페라를 작곡하였으며, 영국은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자주 상연하였다. 합창 양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이 밖에 무대음악, 수난곡, 종교곡, 세속 합창곡, 성악곡, 관현악곡 등이 존재한다.

40) ‘똑같은 곡을 1백곡이나 써갈 사람이다.’ 이것이 험담가로도 유명한 후세의 스트라빈스키가 비발디를 가리켜 비꼬아 한 말이다.

[그림 10 설명]

클래식이라는 어휘는 원래 ‘고전적’이라는 뜻보다는 ‘모범적’ 내지는 ‘표준적’이라는 뜻에 가깝다. 고전과 음악이란 말은 본래 당시 작곡가들이 붙인 말이 아니라 후세에 이르러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 그 이전의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바로크시대의 사회적, 국가적 체제가 어디까지나 절대주의적 왕권 아래 있었으나, 점차 신혼 시민 계급이 대두하면서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사회문화의 건설을 희망하는 계몽주의 철학의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술분야도 과거 종교나 특정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수용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시하는 고대 그리스 예술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과 균형의 조화를 추구하는 음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음악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 여러 면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대위법 중심의 복잡한 다성 음악에서, 간결하고 명쾌한 화성 음악으로 변화를 선호하였고, 소나타 형식이 생겨나 교향곡·협주곡·독주 소나타·현악중주곡 등의 새로운 기악 양식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균형진 규칙적인 형식미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형식도 간결하고 솔직한 것을 좋아 하게 되었고 모든 형식이 어떤 일정한 논리성을 갖게 되었다. 개성적인 감각의 성악음악보다는 기악음악이 인기가 있게 되었다.⁴¹⁾

고전 - 음악적 특징 및 작곡가

1. 형식미의 화성적 단성 음악
2. 객관적이며 균제적(均齊的)
3. 셈여림의 변화와 조바꿈
4. 절대 음악 발달
5. 소나타 형식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 1756~1791)
음악의 신동, 오스트리아



하이든(J. Haydn : 1782~1809)
교향곡의 아버지, 오스트리아



베토벤(l. Van, Beethoven : 1770~1827)
악성 베토벤, 독일





[그림 11]

41) 작곡가들은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음악기법을 창안하는 노력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소나타 형식(Sonata Form)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시대의 형식의 범주 안에서 단순명료하고 질서와 절제를 중시하는 인간적인 음악이 주가 됨으로써 종교음악 분야는 음악사상 처음으로 침체국면을 맞게 된다.

[그림 11 설명]

하이든은 화성적 단선을 음악에 크게 성공했고 2개의 대립되는 테마를 제시하여 그것을 발전시키고 다시 테마를 반복 재현하는 소나타형식을 완성시켰다. 또한 관현악의 악기 편성을 체계화 시키고, 교향곡에 있어서 제 3악장에 미뉴에트를 고정 배치하여 제 1악장 소나타형식, 제 2악장 가요형식, 제 3악장 미뉴에트, 제 4악장 론도형식 또는 소나타 형식의 근대적 교향곡의 형태를 확립하였다.⁴²⁾

모차르트는 3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주옥같은 명작을 많이 남겼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독특한 유머 감각과 넘치는 창작적 기지로 시종 일관되어 있어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전주의 오페라의 최고봉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하이든이 확립한 소나타 형식에 풍부한 색채감과 음악다운 즐거움을 부여하여 자유분방하게 작곡하였다. 모차르트는 그야말로 음악을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⁴³⁾

베토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의해 완성된 고전파음악에 풍성한 생명을 주어 알찬 열매를 가져오는 마지막 매듭을 지었으며 낭만파의 새로운 장에 문을 열어 준 교량적 역할을 한 위대한 작곡가이다. 베토벤은 신체적 장애로 그의 창작세계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영원불멸한 그의 작품은 그의 생애를 더욱 빛내고 만민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 작곡된 그의 작품에는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개발한 고전형식에서 발전부의 확대, 코다부분의 계속적인 장려한 음악 진행, 악장편성의 자유로운 취급, 교향곡의 제3악장에 미뉴에트 대신 스케르초로의 교체, 강약법의 급변 등 여러 형태의 독창적인 음악적 수법을 창안하여 새로운 진보적 경향을 수립함으로써 낭만주의의 문을 열게 하였던 것이다. 그의 생애를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작품시기를 3부분으로 구분한다.⁴⁴⁾

42) 그의 작품에는 104개의 교향곡, 83개의 현악 4중주곡, 24개의 오페라 《천지창조》를 비롯한 4개의 오페라, 14개의 미사곡, 20개의 피아노협주곡, 기타 수많은 종류의 곡이 있다. 한결 같이 명량하고 쾌활하며, 전형적인 고전파음악의 성격을 지닌 걸작들이다.

43) 그의 작품은 41편의 교향곡을 포함하여 600여곡이 넘는데 모두 모범이 될 만한 것이며, 작곡의 중점을 오페라에 두었으나,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미사곡 등 매우 광범위한 작곡활동을 하였다.

44) 제1기는 1802년경까지로서 이 무렵에는 주로 하이든, 모차르트의 양식을 따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시기로서, 작품으로는 <교향곡 제1번과 제2번>,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월광>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제2기는 1815년경까지로서, 이 시기의 작품은 그 자신 특유의 힘차고 그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그의 독특한 개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시기로서, 교향곡 제3번에서 제8번까지, <열정> 등의 피아노 소나타, <라즈모프스키> 현악 4중주곡, 오페라 <피델리오>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제3기는 마지막 시기로서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후의 영감을 통한 창작의 시기로서, <교향곡 제9번>, <장엄미사> 마지막 <현악 4중주곡> 등이 있으며 모두 깊은 사색과 인생을 달관한 종교적 색채가 깃들여져 있는 음악사상 최고의 예술이라 하겠다.

(6) 낭만 음악

▶▶ 낭만 (1810년 ~ 1900년) ▶▶

역사적 배경

18세기 후반 문학사조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에 바탕을 둔다.

음악적 특징

1. 표제 음악 발달
2. 예술 가곡과 오페라가 발전
3. 다양하고 화려한 표현 기법
4.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



<베를리오즈의 음악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



<리스트 : 파가니니 대연습곡중 제3곡 "라 캄바넬라">



[그림 12]

[그림 12 설명]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자유주의 사상이 높아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음악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전 음악의 반발로 작곡자의 주관성을 귀중히 여겼으며, 자유로운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강조하는 운동이 성행해졌다.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융통성 있는 형식의 처리와 소품의 곡이 많아졌다. 서민을 위한 음악, 세속적인 음악이 많아졌다. 문학, 미술, 연극 등 자매 예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표현법이 구사되고 예술의 내용을 암시 하거나 묘사하는 음악이 많이 작곡되었다.

19세기 후반은 낭만과 음악의 황금시대로 개성적이며 주관적인 음악 예술이 확립된 시기이다. 따라서 음악의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혁을 갖게 되어 불규칙적인 것이 많아지고 당김음, 잇단음표 등을 자주 사용해서 다채로운 변화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그 음역도 확 대하고 때로는 비성가적인 음정도 서슴치 않고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리듬도 자유롭게 되어 복잡한 겹 리듬을 자주 쓰게 되었고, 화성도 아직 3화음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자유롭게 변화를 가져와 불협화음을 자주 사용하고 대담한 조바꿈을 하게 되었다.



낭만의 음악가 및 작품



슈베르트 (F. P. Schubert : 1797~1828, 오스트리아)
가곡의 왕, 예술성이 풍부한 가곡 작곡,
가곡집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등.



쇼팽 (F. F. Chopin : 1810~1849, 폴란드)
피아노의 시인, 시적 감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피아노곡,
피아노곡 '즉흥 환상곡', '야성곡' 등.



[그림 13]

[그림 13 설명]

슈베르트는 샘솟듯 넘쳐흐르는 악장과 이것을 작품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직감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느낀 영감을 따라 애환을 그리고 감정을 음악에 도입시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서정의 음율을 노래한 것이다. 또, 가곡이란 장르를 통해 낭만주의, 독일 리이트의 세계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 슈베르트이다.

쇼팽은 프랑스 사람을 아버지로 폴란드 사람을 어머니로 폴란드에서 태어난 혼혈아이다. 쇼팽은 그 혈통이 말해 주듯이 음악에 있어서도 폴란드 민속적인 요소와 프랑스의 세련된 감각이 그의 음악의 바탕이 되고 있고, 그의 작품에 흐르고 있는 그의 정신과 감정은 어디까지나 폴란드적이며 이것은 외적의 침략을 받은 고국의 애국심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폴란드적인 체질과 더불어 그의 작품의 특징은 깊은 서정과 풍부한 정서, 여기에 고상한 품위가 큰 매력이 되고 있다. 대개가 즉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꾸밈음과 템포의 변화, 독특한 장식음의 전개 등을 특색으로 하여 시적으로 표현 된다.

(7) 근대·현대 음악



근대·현대 (1900년 ~)

<p>역사적 배경</p> <p>1. 2 세계대전으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미학적 관점도 크게 변화되었다.</p>	<p>음악적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상주의 음악 2. 표현주의 음악 3. 신고전주의 음악 4. 무연성 음악
 <p><라벨의 볼레로></p>	 <p><전자음악></p>

[그림 14]

[그림 14 설명]

19세기 말, 낭만과 음악이 최고도에 이르렀을 무렵, 반 낭만과 운동이 일어나 새로운 양상의 음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제1차 세계 대전 사이의 음악을 근대 음악이라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비정서적, 부조화적, 충격적인 양상을 짙게 나타내기 시작한 음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진행되거나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음악을 통틀어 현대 음악이라 한다. 근대, 현대 음악은 이미 낭만과 음악의 형태를 벗어나 인상주의⁴⁵⁾, 표현주의⁴⁶⁾, 무조 음악, 12음 음악의 호

45) 인상주의 음악(印象主義, Impressionism)은 프랑스의 드뷔시가 창안한 인상주의 음악은 낭만주의에서 현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악파이다. 이 음악은 프랑스의 인상파의 회화와 상징문학에서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인상파 회화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중시하는 야외 회화를 주장하였고, 형태를 그리는 선보다는 색채와 분위기적 인상을 중시하였다. 음악에 있어서도 이와 흡사하여 선율이나 형식의 명확성 대신에 감정을 강조하는 색채적 음악을 썼다.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 실 새 없이 변화하는 외계로부터의 자극에 대하여 예술가가 받은 순간적인 감응이며 응답이다. 그러므로 인상이란 외계의 묘사가 아니라 한번 마음에 자극된 내적인 인상을 결국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음악의 다이내믹한 감동보다는 음빛깔, 누앙스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한다. 기법상으로는 화음진행이 색채적이고, 연속적인 불협화음과 선법, 5음 음계 등 예외적인 음계 등을 사용하였다.

46) 표현주의 음악(Expressionism)은 20세기 초반에 쇤베르크를 중심으로 주로 비엔나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외적인 형태의 표현으로서의 인상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내면적인, 특히 잠재의식적인 일면을 표현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정세는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어 유럽사회는 불안에 차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웠으며 정신은 안정을 잃고 있었다. 쇤베르크 등의 작곡가들은 고착된 표피성, 이중윤리, 순응주의, 허구적 달콤함으로 특징이 지워진 시민사회를 거부하고 도전적인 진실, 깨어 있는 감수성,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는 철저함을 추구한다. 표현주의는 극단성, 대조성, 거의 광란에 가까운 격정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후 이러한 극단적인 것은 새로운 음악의 본질이 되어 고전적 균형

름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새로운 음악의 소재를 추구하는 구체 음악, 전자 음악 및 예술의 극단을 달리는 전위 음악도 등장한 가운데 많은 작곡가들이 서양 음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동양 음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초로 작곡에 힘쓰고 있다.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은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주관적인 정서의 과잉, 방대한 관현악의 편성, 표제음악적인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등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고전주의는 객관성과 형식성을 보이는 낭만주의 이전의 음악 관념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18세기 고전주의 양식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고전주의의 기본적으로 19세기 낭만주의 이전의 간결한 형식미를 추구하지만 예기치 않은 전조, 선율의 혼합, 그리고 강렬한 화성, 불협화음 등의 20세기 성향을 갖고 있다.

우연성의 음악(Music of Chance Operation, 偶然性)은 불정확성 음악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통적 음악 개념으로는 음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20세기의 가장 급진적인 아방가르드이다. 이 음악은 일정한 법칙이나 제한이 없다. 작곡가는 기존하는 음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련의 기호 같은 음표를 대신하기도 한다. 연주자는 작곡자의 의도를 자유롭게 이해하고 즉흥적으로 연주한다. 물론 연주는 그 때 그 때마다 달라지고 작품은 녹음을 해야만 보존될 수 있다.⁴⁷⁾

을 철저히 기피하게 된다. 표현주의 기법의 특징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멜로디는 무조(無調, Atonality)이고 화성은 극단적인 불협화음, 거칠게 연주되는 악기들의 음색대조 등을 들 수 있다.

- 47) 미국의 존 케이지(John Cage, 1912~)와 슈톡하우젠은 우연성 음악을 많이 실행하였다. 존 케이지의 <상상적인 풍경화, op.4>는 12개의 라디오를 각각 다른 주파수에 맞춰 놓고 두 사람의 연주자가 나와 주파수와 음량을 조절한다. 1954년에 발표한 그의 작품 피아노곡 <4분 33초>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악기 앞에 앉은 채로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아노 뚜껑을 닫고 퇴장한다. 말하자면 그 시간이 들려오는 잡음이라든가 듣고 있는 자신의 숨소리, 고동소리 그 모두가 다 음악이라는 것이다.



근대·현대 음악가 및 작품



인상주의 음악
드뷔시 (C. A. Debussy :
1862~1918, 프랑스)
근대 음악의 선구자.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표현주의 음악
슈베르크 (A. Schönberg :
1874~1951, 오스트리아, 미국)
현대 음악의 선구자.



가곡 <달의 피에로>

[그림 15]

[그림 15 설명]

근대음악에서 맨 먼저 낭만 음악에 반기를 든 사람이 '드뷔시'이다. 이 사람은 음악을 감각 적인 면에서 구성하는 이른바, 인상주의를 주장한 개척자로서, 그를 인상파 음악의 시조라고도 한다. '드뷔시'가 주장한 인상주의 음악은 원래 미술계에서 일어난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외계의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각적 인상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물체의 형태가 아니라 색채와 빛, 그리고 생기이다. 선은 확실치 않지만 색채만은 아름답고 감각적인 농도가 있다. '드뷔시'는 이것을 음악에 옮기려고 했고, 한편 당시 문학에서 쓰이던 상징주의 즉, 반자연주의적인 태도에서 주관적인 기분을 표현하고 명확한 관념보다는 막연한 느낌, 환각과 같은 정조를 중요시하는 이 상징주의를 음악에 실현시킨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을 취급하는 법칙 즉, 조성이라든가, 음계라든가, 대위법도 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규칙적인 박자의 관념도 없어지고 까다로운 화성법도 기능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색채적으로 취급 되었다.

슈베르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며, 빈에서 출생했다. 빈의 유대인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2음기법의 창안으로 20세기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고전과 이래의 조성음악 체계를 12음 기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작곡 교사로서는 <화성악> 이래 많은 음악 이론서를 집필하여 많은 제자들을 육성해냈으며, 그 체계적인 음악의 사고법은 블레즈, 슈톡하우젠 등 전후 작곡가들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V. 결론

학교 교육에서 음악 교육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는 음악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영역일지라도 이해하는 데는 음악사적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과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방식과 내용, 시대구분과 그 명칭, 각 교과서에 제시된 작곡가와 서술내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비교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각 교과서를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에서는 서양 음악사와 감상, 참고 곡 또는 알아두기, 확인학습을 구성하여 서양 음악을 시대에 따라 간략하게 개념소개를 하고, 학습요점과 각 시대적 배경, 작곡가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대 · 중세 · 르네상스 · 바로크음악을 한 페이지에서 설명하므로, 다른 시대들에 비해 음악적 특징이 너무 빈약하고, 그 시대 대부분의 작곡가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쳐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두산에서는 서양 음악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양 음악의 역사」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감상곡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접근방법에서 음악사와 감상곡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교과서에서는 서양음악사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대한에서는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배경, 음악적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개념과 요점정리를 각 페이지 좌측에 간단하게 제시하므로 서양 음악사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본다. 또한 교과서 하단의 ‘감상’, ‘더하기’ 부분에서는 각 시대의 서양 음악사 부분과 감상 부분이 제시하지 못했던 작곡가나 곡의 주제 부분들을 악보로 보여주므로 참고 할 수 있다.

박영사에서는 서양 음악사의 시대적 서술에서 작곡가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감상 부분에서 채택된 곡의 해설과 그 곡의 작곡가에 대한 설명만 조금 언급되었을 뿐 다른 교과서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세광은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까지 음악 여행이라는 음악사 이야기에서 감상곡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고전과 낭만에서만 국악, 한국사, 세계사로 나누어 시대비교를 자료로 제시해 주고 있고,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적은 양의 작곡가를 제시하고 있다.

천재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서양 음악사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학습자들이 서양 음악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시대를 대표하는 중세 · 르네상스에서는 작곡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후 시대에서는 음악사에서 이름과 하나의 작품만을 제시해 주고, 그 외에

는 감상곡에 채택된 곡의 작곡가만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서양음악감상만 차례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순서 없이 국악, 음악알기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서양음악사와 연속적으로 보기에는 불편하다.

태성은 두산처럼 서양 음악사를 따로 제시해 주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이해」 영역에 서양 음악사를 다루고 있다. 연도구분이 중세부터 100년 단위로 시대구분을 하여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더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천재와 마찬가지로 작곡가는 이름만을 제시해주고, 감상곡으로 채택된 곡의 작곡가만을 감상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때 관련 감상곡 제시는 시대 설명의 하단에서 페이지와 곡명만 제시한다.

현대에서도 「역사속의 음악」이란 단원에서 ‘음악사-감상-음악사-감상’ 형식의 방식구조를 띠고 있기에 서양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서 수업하기에 용이하다고 본다.⁴⁸⁾

위의 내용과 같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서양 음악사의 시대에 따른 구분도 각 교과서마다 비슷했지만 시대구분의 명칭과 연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서양 음악사의 시대구분은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에게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시대 구분과 명칭이 통일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교과서마다 서구 예술음악의 양식 변천을 통 시대적으로 서술함에 있어 통일된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연대, 곡목의 열거 등 단편적 정보들을 본문과는 분리시켜 가능한 한 도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교과서에서 서양 음악사의 시대적 서술과 작곡가의 설명이 불균형을 이루고 다양하게 보여주지 못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작곡가만을 설명한다든지 한 시대에 치우치는 교과서 구성은 작곡가와 그 작품을 고르게 접할 기회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좁아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음악 수업에서 단계적이고 균형 있게 구성된 서양 음악사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과서의 구성과 그것을 활용하는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48)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서양 음악사의 흐름을 하나로 이어서 보지 않고, ‘제작곡-국악(민요나 시조 등)-국악기 실기-서양 음악사-서양 음악 감상-세계 속의 음악-세계 속의 대중음악’(예 : 대한교과서의 1단원)처럼 한 단원에서 한 시대 정도만을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음악*. 서울 : 대한 교과서.
- 김문자 외(1993).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 1, 2, 서울 : 심설당.
- 변정자(1988). *음악교육 및 이론과 실제*. 서울 : 삼호출판사.
- 사전편찬위원회 편(1982).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장직(1988). *음악과 사회*. 서울 : 청하.
- 일신음악연구회(1990). *클래식 음악감상 해설*.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 조선우, 홍정수(1990). *음악은이 1, 2*.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황정규(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 현대음악교재연구회(1998). *명곡해설*.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Apel, Willi. (1972).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ut, Donald J. (1991). *서양음악사(상, 하)*.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Hoffer, Charles R. (1987).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usell, J. L. & Glenn, M. (1987). *음악교육심리학*.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옮김,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Miller, H. M. (1999). *음악감상을 위하여*. 양일용 역, 서울 : 태림출판사.
- Reimer, H. M. (199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_Hall Inc.

교과서

- 고춘선, 홍종건(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김성수 외(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대한교과서(주).
- 백병동 외(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천재교육.
- 서한범 외(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도서출판 태성.
- 윤경미, 문진현(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이강을 외(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박영사.
- 이홍수 외(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두산.
- 정영택, 허화병(200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교학사.

학위논문

문세리(2006).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사 수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박은경(2003).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서술방식에 관한 연구 -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여양현(2000).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음악사 영역에 대한 분석 연구 - 6차 교육과정 9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희(2004). “음악사와 감상곡에 대한 분석 및 연계성 구성에 관한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8종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한은희(1999). “음악사 영역 및 그에 따른 감상곡과 연계성 비교 분석 - 현행 고등학교 5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58254	과 정	(석사) , 박사
성 명	한글: 유순아 한문 : 劉洵兒 영문 : Soon-Ah Yu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상호@ 3-1403호				
연락처	E-MAIL : cellistyou@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효과적인 음악사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서양 음악사를 중심으로-				
	영문 :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he Musical History in the High school music textbook - Focusing on Western musical history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O) 반대 ()

2008년 8월 일

저작자: 유 순 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